

교차로

승가



행자부장관 감사패 받아

현성 대한불교청년교화연합회장은 10월21일 제53주년 경향의 날을 맞아 행정자치부 김정길 장관으로부터 치안행정 발전과 이웃에게 선정을 베푼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청화님 초청 대법회

법혜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은 11일 오후4시 정각원법당에서 성륜사 조실 청화스님 초청 대법회를 봉행한다. (0561)770-2016



해인승가대 총동문회장에

해충 감로사 주지는 10월23일 구룡사에서 개최된 해인승가대 총동문회 98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추대됐다. 스님은 해인승가대 47로 졸업했다.



평등종교 추계 시찰순례

일면 광동학원 이사장(불암사 주지)은 10월 24일 광동종합고등학교 불교학생회 추계시찰순례, 10월 25일 광동여고 교직원 시찰순례를 각각 실시했다.



영가 합동천도재 봉행

영담 석왕사 주지는 10월 25일 오전 10시 석왕사 육화전에서 장례의례종합법당 창립 1주년을 맞아 영가 합동천도재를 봉행했다.



무의탁노인 초청 효도관광

설송 경산 백천사회복지관장은 10월 22일 지역내 무의탁노인을 초청해 남해 보리암으로 제4회 무의탁노인 효도관광을 다녀왔다.



자비관세음보살 석불 조성

송묵 동원정사 주지는 동원정사내에 7m 높이의 천수천안 자비관세음보살 석불을 조성하고, 10월 25일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실직자 위한 천일장지기도

도일 직지사 대구 수성구포교인 황률사 주지는 10월 28일 이전 개원식 및 실직자를 위한 천일장지기도 인제식을 봉행했다.

“회원 의견수렴·화합에 최선”

조계종 본사주지모임 새회장 법장스님

“머뭇머뭇 본사주지스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선돼 기쁘면서도 그분들의 뜻을 수렴해 종단과의 매개체로 역할해야 한다는 책무감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조계종 ‘민족문화’를 수호하는 본사주지모임의 3대 회장을 맡은 법장스님(수덕사주지)은 자신감에 차 있다.

“종단은 중책을 입안하고 본사는 현장실행을 합니다. 각 말사들의 의견이 피부로 접촉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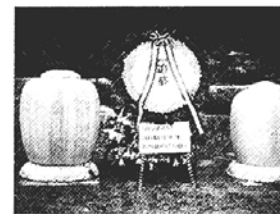
되는 곳이 본사지요. 그만큼 본사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임은 전국 본사주지들이 서로 만나 포교 교육에 대한 정보교환을 통해 종단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본분입니다.” 스님은 무엇보다 회원들간의 원용 화합에 최선을 다하고 이를 토대로 외부의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선거로 불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종단현실에 대해 스님은 “종단발전에 되도록



는 양상은 결코 없어야 하며 양보하고 스스로 돌아보며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英 데일리메일지 회장 로더머이 덕유산 문혀



10월 21일 오전 전북 무주 덕유산 백련사(주지 공상스님)에서 영국 데일리 메일(Daily Mail)지의 회장 로더머이 자작(子爵)의 ‘부도(浮屠)’ 제작식이 열렸다. 이날 부도 제작식은 로더머이자작이 사망하기 전 아내 이정선씨(48·재일교포)에게 “한국의 백련사에 부도로 남겨달라”는 유언에 따라 이루어졌다.

로더머이 자작의 부도는 백련사일주문 앞 장모 최씨의 부도와 함께 나란히 세워졌다.

연출가 김상렬씨 별세



뮤지컬 ‘무애’가 ‘님의 침묵’ 등을 연출한 김상렬씨(57)가 10월 26일 오전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지병으로 숨졌다. 불자연출가인 김씨는 탁월한 연출능력을 인정 받았으며, 28일 동송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연극인장(葬)으로 치러져 현안공원묘지에 안장됐다.

네팔풍 문화공간 ‘예피의 집’

이근후박사 살청공원 입구에 열려



삼청동 공원 입구에 카페공간과 소모임을 즐길 수 있는 네팔풍의 문화공간이 들어섰다. 부처님나리 네팔에 20년동안 의료봉사활동을 벌여온 이근후박사(이대 신경정신과·석불문화연구회장)가 사택을 개조해 마련한 ‘예피의 집’으로 가족 아카데미(Family Academia)연구소의 사무실도 자리잡고 있다.

‘예피의 집’ 마당에는 3개월 단위로 증권작가 작품 소품전이 상설로 열려, 도예가의 생활도자기 상설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또 지하의 50여평 사무실은 시청각 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됐으며 사회교육공간으로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대여도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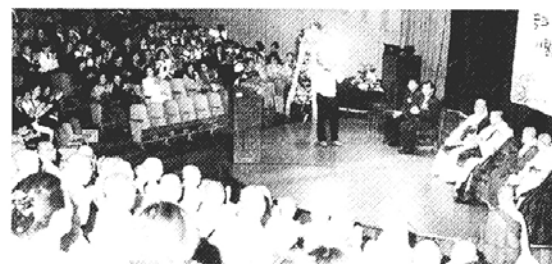
‘예피’는 히말라야 설산 속에 살고 있는 전설적인 설인으로 설과들에게는 그들의 영원을 들어주는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존재. 이름에 걸맞게 ‘예피의 집’은 맛과 멋을 즐기면서 정담을 나눌 수 있는 문화와 문화인이 만나는 공간이다. (02)732-8144

위영란 기자



우리는 선우 7돌 기념 십선계 수계

우리는 선우(공동대표·남지심 박광서)는 10월 24일 오후2시 창립 7주년 기념 십선계 수계법회를 수유리 호계사에서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화계사 조실 승산스님,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 한국불교환경연구원 원장 법륜스님 등이 참석했으며, 불자 1백20여명이 수계를 받았다. 한편 이날 법회에서 우리는 선우 윤용숙 이사는 한산장학회 장학기금 1억원을 기탁했다.



목동청소년회관 개관 10돌 기념법회

목동청소년회관(관장 명우)은 10월 26일 개관 10주년을 맞아 초대관장 해춘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국장 종서스님, 양천사회복지센터 관장 성륜스님, 생명나눔실천회 회장 법장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명우스님은 “청소년회관은 사회의 각종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시설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개혁과 자주종단의 뿌리를 부정하는 연대회의를 즉각 해체하라

민족을 향도하며 민족정신을 계도해 온 지라한 한국불교사의 최대의 치욕이 10·27법난이라는 것을 모든 불교도들이 잘 알고 있다. 이 불명예스럽고 가슴 아픈 역사적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는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중단없이 노력해 온 것이 80년대의 일이다. 그 과정에서 밝혀진 10·27법난의 진실은 부도덕한 정권이 종권을 유린하고 불교개혁과 교단발전을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이 법난의 피해 중심에는 당시 총무원장으로써 종단분규를 일소하고 정권의 속박에서 벗어나 화합종단, 자주종단을 건설하고자 했던 송월주 스님이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들이 쌓아왔던 역사적 성과까지도 스스로 부정하는 연대회의의 일부 단체들에 참담함을 느끼며 10·27법난의 진상을 밝힌다.

10·27법난은 군사정권이 화합종단, 자주종단을 유린한 불교사의 치욕이었다.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조계사 - 개운사 간의 분규가 1980년 3월 30일 쌍방의 합의로 20일 이내에 종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5개 조항에 대해 합의하면서 종식되었다. (한국불교현대사, 동국대 석립동문화 편)

10·27법난 며칠전인 10월 20일에는 조계종단 자율정화 세부지침을 확정하고 불교관계법 개정 취지문이 나왔다.(정토구현, 1988년 10월 25일, 정토구현전국승가회 기관지)

당시의 문공부는 이러한 불교교단의 자주적 강화에 당황하고, 이를 억압하기 위하여 송월주 총무원장의 취임등록을 거부하고 있었다. (10·27 법난 진상규명추진위원회, 1988년 11월, 윤필하, 김서운, 송월주, 유필란, 이해성 스님 명의 성명서)

10·27법난은 “전두환장군 대통령주대 지지성명” 거부에 대한 폭력복박이었다.

1980년 8월 군사정권의 산하 정보기관은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이던 전두환장군의 정치집권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조계종 총무원장의 명의로 발표해 줄 것을 송월주 총무원장에게 수차례 요구하였다. 그러나 송월주 총무원장은 이를 정보관리위원회에 입각하여 단호히 거부하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군사정권에 침묵으로 저항하고 있었다. 이에 아비한 군사정권은 폭력으로 보복하였다. (10·27 법난 진상규명추진위원회 성명서)

제5공화국 지지성명을 당시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거부했던 사실과 전두환씨가 국보위상임위원장 시절 원로 대덕스님이 참석해 조찬법회를 가져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당시 친태종 총무원장 녹암스님의 증언으로 짐작되는 일이다. (불교신문 1988년 10월 26일)

10·27법난은 월주스님을 총무원장 직에서 강제로 사퇴시킨 종단사의 단절이었다.

수사결론이 중앙총회가 해왔던 일련의 일들의 합법성이 인정되고, 합법성을 바탕으로 스님께서 원장으로 선출했다면 합법적인 종단이거든요. 그런데 왜 중앙총회를 해산시키고 총무원장의 사표를 강요해 그 후 소위 ‘불교정화총회’를 출범시켰는지 그 점을 알고 싶습니다.(대담자:성문-중앙총회의원, 월간법회 1987년 10월호)

그들은 수사과정에서 구속자들에게 종단의 각급 직책을 강제로 사임하게 하여 정통종단의 종권을 단절시키고, 비정통 운영기구를 만들어 군사정권에 순응하게 하였다. (10·27법난 진상규명추진위원회 성명서)

불교의 최고 대표권자인 총무원장은 23일간이나 군사사대에서 감금된 채 조사를 받고 그 자리에서 총무원장직을 내 놓아야 했다.(대승불교, 1988년 9월 30일 대승불교승가회 기관지)

스스로 뿌리를 부정하고, 목을 조르는 더 이상의 우를 범하지 말고, 연대회의 양심적 단체는 즉각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길 간곡히 요청한다.

10·27법난의 아픔을 당하고 많은 승가, 재가 종도들이 불교개혁의 대열에 합류해 왔다. 10·27법난의 실체를 규명하는 투쟁속에서 불교운동이 발전해왔고, 단체들이 성숙해 왔다는 것은 모든 불교인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을마다 월주스님과 함께하지 못함을 아쉬워하고, 모시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한 것이 저간의 실정이었다. 80년 월주스님의 총무원장 재직시절을 화합종단, 자주종단의 단초라 여기고 수많은 인사와 단체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인식과 활동속에서 조계종단사에서 길이 빛날 '94년 개혁 종단 출범시에 모든 개혁세력이 합심하여 월주스님을 총무원장으로 당선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맞이하여 몇몇 인사와 단체들이 월주스님의 80년 총무원장 재직을 정상적인 총무수행으로 돌아가더니 급기야는 10·27법난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스스로의 뿌리를 부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전통과 핏줄을 부정하고 어디로 가겠다는 것인가.

연대회의에 결합한 실천승가회와 각급 단체는 종단을 분란시키는 애종행위자들과 손을 놓고 개혁의 큰 물결로 신속하게 합류하라.

선거 국면을 맞이하여 해종행위자들과 개혁분파세력들이 개혁종단을 혼란으로 몰아가려 하는데 연대회의의 참가단체들이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냉철히 인식해야 한다. 지난 4년간 쌓아온 종단의 위상을 하루 아침에 추락시킨 해종행위자들의 10월 24일 총무원 청사에 대한 폭력적행위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며, 연대회의의 공동의장인 진관스님이 폭력적행위의 주역들이 사면복권추진위의 공동의장 또한 말야 그들과 함께 행동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80년대의 불교자주화 운동의 성과와 '94년 불교개혁의 성과로 현 개혁종단이 탄생했다. 도도한 역사의 흐름과 개혁의 물결에 의해 꽃겨났던 반개혁세력과 해종행위자들이 다시금 종단행정에 들어오려 하고 있다. 이들은 불교발전과 종단안정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고, 오로지 종단을 혼란으로 몰아가려 다시금 옛날의 영화를 되찾으려하고 있는 것이다. 시국의 긴박함을 인식하고 불교개혁의 지속과 종단발전을 염원하는 제 단체들은 제 단체들은 즉각 연대회의를 해체하고, 불교개혁의 큰 물결에 합류하여 21세기를 향도해 갈 종단 건설에 매진하자.

불기 2542년 10월 29일

송월주 총무원장 후보 추대위원회